

우리나라의 煖房施設인

溫突(구들)形成에 對한 研究

張慶浩

序論

人類가 불을 쓰기始作한것은 數拾萬年前 舊石器時代 부터라고 考古學者들이 말하고있다. ① 불의 使用歷史는 이렇게 오래되지만 그 主目的은 무엇보다도 煖房과 炊事에 있었다고 간단히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主目的을 위한 施設은 人類의 建築文化와 不可分の 關係를 갖고 建築의 一部로서 形成 發展되어왔다. 그런데 建築形式이 地域과 民族에 따라 다른것과 같이 이 煖房및 炊事施設도 각기 다른 特徵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世界 어느 民族에서도 볼수없는 溫突(구들) 構造를 發展시켜 使用해왔고 오늘날 이것은 다른 煖房施設보다도 優秀함이 立證되고 있다.

이러한 特徵的이고도 우수한 우리나라 溫突施設이 어떻게 形成되어 發達되었는지를 항상 궁금해하던 차 近年에 施行된 몇件의 遺蹟發掘調査에서 이 論據를 提示할 수 있는 資料를 얻게되어 이에 對한 考察로 이 論文을 쓰고저 한다.

(가) 우리나라 煖房施設의 發生

우리나라에서 先史時代부터 이루어지는 原始建築으로는 所謂 竪穴式과 土室式, 累木式 그리고 高床式 建築이 있었다는 것을 實存 遺構나 記錄^②으로 보아 알수 있지만 이 中에서도 竪穴式 움막집이 널리 사용되었다.

竪穴式 住居의 遺蹟은 韓半島 全域에 걸쳐서 分布되어 있음이 發掘調査에 依하여 밝혀지고 있는데 그 初期의 것은 대체적으로 新石器時代의 櫛文土器를 사용하였던 時期로 보고있어 그間的 報告書와 論文을 綜合하여 그 特徵을 概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平面이 圓形 또는 圓形에 가까운 形態였다.
 - ② 住居址의 規模는 一的般으로 直徑이 六 m 内外의 것이 많았다.
 - ③ 竪穴의 깊이가 六〇cm ~ 七〇cm 가 보통이고 二五cm 에서 一一〇cm 되는 곳도 있었다.
 - ④ 竪穴內 中央部에는 南北의 長軸으로 直徑一,〇m 内外의 橢圓形 爐址가 많이 쓰이고있어 그 周圍에는 自然石으로 둘러거나 진흙으로 땅을 쌓는 경우도 있다.
 - ⑤ 貯藏孔은 하나인 경우 爐竈에 마련했다.
 - ⑥ 住居址의 기둥구멍을 바닥에서 垂直으로 뚫린것과 邊에서 中心을 向하여 傾斜진것도 있다.
 - ⑦ ⑧ 바닥은 特殊한 경우 진흙을 다져 간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다진 흙이다.
- 以上の 特徵을 살펴볼때 住居址와 貯藏施設의 小規模등인 點으로 보아 이時代의 生活는 狩獵採集 生活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요즘과 같은 恒久的인 住居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런데대로 採光과 煖房計劃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다.

첫째로 出入口를 南向으로 만들어 採光과 煖房을 配하였고, 둘째 바
다을 과내려가서 所謂 多結深度에 가까운 地層에서 保溫을 配하였으며
셋째, 爐址를 住居의 中央에 두어 半徑 約 3m 內외의 範圍와 낮은 지
붕 밑 空間을 덮히는 데 効率的 內部空間을 이루었고, 넷째 爐址 周圍에
自然石을 두어 돌을 덮히어 그 殘熱이 방안에 온기를 느끼게 하였으며
로 소위 구들(구운돌-구들)의 煖房施設을 갖기 始作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以上과 같은 煖房計劃은 經驗的인 進化로 생긴 것이겠지만 여기서
부터 우리나라의 發達된 溫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數千年이 걸렸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 時期에 爐址에 對한 實例의 記述^③을 들어
보자.

① 智塔里遺蹟(黃海道 風山郡 智塔里)

○ 第一號 住居址

竪穴의 平面은 一邊이 약 7m 정도의 正方形에 가깝고 竪穴의 깊이
가 四〇cm ~ 五〇cm 이며, 內部에는 中央部에 爐址가 있었는데 長徑이
一, 1m의 橢圓形으로 그 周圍에는 긴축한 넷돌이 둘러싸여 있었다.

○ 第三號 住居址

方形과 圓形의 中間形으로 一邊이 三, 2m ~ 四, 0m였다. 竪穴바닥은
진흙을 깔고 굳게 다져서 平面을 이루고 바닥 中央에 爐址가 있었다.
出入口는 東南쪽에 있고 二段의 階段式으로 되었는데 段高이가 一五cm
였다. 爐址는 南北으로 긴 橢圓形인데 南北 一, 1m 東西 〇, 九m 中
央깊이 二〇cm였다. 爐址 周圍에는 돌이 配置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혼
적이 있었다.

② 弓山遺蹟(平南 溫川郡 雲上里)

○ 第一號 住居址

平面이 不整圓形으로 直徑이 五, 六m ~ 五, 八m되며 깊이는 一, 二m ~
一, 三m였고 西南쪽 壁에 幅이 〇, 八m 길이 一, 五m로 밖으로 突出한

出入口가 있다. 爐址는 長徑 九〇cm 短徑 七八cm의 橢圓形으로 깊이는
三〇cm였다. 周圍에는 깨어진 礪石板을 둘러는데 그中 한개에 圓錐形
小孔이 있어 이것이 發火施設인 듯 했다.

○ 第五號 住居址

대체로 方形에 가까운 平面이나 圓形 竪穴에서 方形으로 넘어가는 過
渡의인 特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出入口는 竪穴의 東北壁에 있
었던 것으로 생각됐고 爐址는 南北約 一, 〇m 東西 約 〇, 七m의 橢圓
形으로 깊이 三五cm이고 周圍에는 불에 구운 粘土가 폭 五cm ~ 二〇cm로
둘러 있었다. 이렇게 구운 진흙으로 爐址 周圍를 둘러린 것은 第二號 住居
址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한다.

③ 서울 岩寺洞遺蹟

一九六七年에 全國大學博物館과 一九七一年 ~ 一九七四年에 걸쳐서 國
立中央博物館에서 發掘調査되어 그 略報告에 依하면 「……집자리 가운
데는 손바닥 크기의 긴축한 강자갈을 모로되어 만든 화덕자리(爐址)가
반드시 있다. 화덕의 형태는 집자리의 形態와 비슷한 것 같다. 즉, 집자
리가 圓形이면 화덕도 圓形이고 집자리가 方形이면 화덕도 方形의 형태
와 비슷한 것 같다……」^④라고 하였다.

以上の 記錄으로 보아 이 時期의 爐址는 대체적으로 방 中央에 놓았
고, 形態는 南北으로 長軸을 둔 橢圓形이나 혹은 方形도 있으며 爐의 中
心部를 바닥보다 깊게 만들어 그 깊이를 一五cm ~ 三五cm 까지 一定치
않게 하고 爐 周圍에는 보통 긴축한 自然石을 둘러나 礪石의 破損된 石
材를 둘러린 경우와 진흙으로 두 같이 둘러린 경우도 있다. 또 이 爐址에서
는 竪의 貯藏孔이나 그 안에 있던 動物뼈 등의 發見으로 煖房점 부뚜막
의 機能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溫突(구들)과 부뚜막의 發展

다음으로 青銅器와 初期 鐵器時代의 竪穴住居址의 煖房施設과 부뚜막

施設의 發展過程을 살펴 이 時代의 竪穴住居址의 特徵을 綜合 概述하면 다음과 같다.

一) 金石併用時代에서 靑銅器時代에 걸쳐 農耕作이 始作되어 定着生活과 큰 聚落을 形成하게 된다.

二) 거의가 長方形으로 前時代보다는 큰 規模의 平面을 하고 있다.

三) 前時代의 丘陵이 아닌 河川沿岸으로 옮긴다.

四) 前時代에는 房 中央에 있던 爐가 방한쪽으로 옮겨지며 二個일 때 가 많고 特殊한 形態의 것도 볼 수 있다.

五) 前代에 있었던 貯藏孔이 없어진다.

六) 竪穴의 깊이가 얕아지고 한邊은 전혀 없는 곳도 있어 간막이 벽과 外壁의 壁體가 세워짐을 알 수 있다.

以上の 特徵으로 보아 이 時代에는 農耕이란 生活의 革命으로 勞動力이 必要하고 좋은 勞動力을 갖고 있는 사람은 繁榮하고 집안과 家族이 늘어나고 따라서 한 家族에 여러 建築物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한 房안에 貯藏孔으로 食品을 貯藏하던 時代는 지나고 別途의 食糧倉庫가 必要하게 되었다.

다음 報告書에 記錄된 實例를 들어 이 時代의 煖房과 부뚜막을 위한 施設로 보이는 것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會寧五洞遺蹟(咸鏡北道)

○ 第八號 住居址

竪穴의 平面 長邊이 八、四 m 短邊이 六、五 m 깊이는 七五 cm ~ 一四〇 cm 인데 東北壁에 龕室과 같은 房이 二개가 있었고 出入口는 東側에 있었다. 突出部는 食糧이나 生活用具를 貯藏 格納하는 施設이거나 祭祀를 지낸 시설인 듯 했다. ⑤ 竪穴의 바닥은 진흙을 깔고 다졌으며 爐址는 南쪽에 치우쳐 長邊 八五 cm 短邊 六五 cm 의 長方形이었고 그 周圍에 돌을 둘러고 있었다. 또 이 爐址와는 反對便인 西北壁 가까이 불개탄 진흙으로 쌓은 둑 모양의 施設이 있었는데 이 역시 爐址였다고 한다.

② 公貴里遺蹟(平安北道)

○ 第五號 住居址

이 住居址는 六個가 南北으로 軸을 이루어 交通壕로 連結되어 있는 建物址中的 하나이다. 竪穴의 平面은 한邊이 五、七 m ~ 六、七 m 인 不整形이며 깊이는 五〇 cm 內外이다. 바닥도 진흙을 다져 깔고 爐址는 中央에서 좀 北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 바닥은 板石을 깔고 周圍에는 東쪽에 三個 西쪽에 二個의 自然石을 세우고 爐의 크기는 七〇 cm × 五五 cm 의 長方形이었다.

③ 京畿道 坡州郡 交河里遺蹟

一九六五年에 發掘調査된 遺蹟이다.

○ 第一號 住居址

竪穴의 長軸이 西에서 약간 北으로 기운 東西向을 하고 있어 長邊이 九、五 m 短邊이 三、二 m 깊이는 三五 cm ~ 七〇 cm 이다.

長軸을 따라 中央에 기둥구멍이 나란히나 있었고 爐址는 東쪽에 치우쳐 二개가 있었는데 長邊이 六〇 cm 되는 橢圓形으로 그 깊이는 一〇 cm ~ 一五 cm 였다. 爐周圍에는 아무 시설도 없었다. 또 竪穴의 西北壁 가까이에서 이 벽에 平行으로 되다가 西南壁쪽으로 「字」로 꺾여 나가는 排水溝로 보이는 遺構가 보였으나, 그 끝이 竪穴의 破壞部分에 걸려 잘 알 수 없었다 한다. ⑥ 그러나 이 報告는 分明치 않은 점이 있다. 즉 外部보다 더 낮았던 竪穴 內部 바닥에 排水溝가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이것은 다음에論하게 될 다른 施設이 아닌가 의심된다.

④ 京畿道 驪州郡 欣岩里遺蹟

一九七六年에서 一九七七年에 發掘調査된 이 住居址는 第一、二、三、一四號의 住居址가 發掘調査되었는데 特別히 住居址에서는 炭化穀物이 나왔고 또 木炭등이 나와 그 炭素測定時代를 試驗한 結果 一二號 住居址에서 B·C 七세기와 B·C 一三세기(韓國에서 測定) 그리고 B·C

一〇세기(日本에서測定)로 나왔고 一三號 및 一四號의 住居址는 B·C 세기기로 나왔다 한다. ⑦ 또 이들 住居址는 모두 山의 傾斜面을 낮은 쪽에서부터 파들어가서 생긴 平地를 利用한 半竪穴式 住居址였고 平面이 모두 긴 長方形으로 第一二號址가 九·七m×三·七m이고 第一三號는 七m×二·八m, 第一四號가 一〇m×四·二m 였다고 한다. 內部の 施設로서 第一二號에서는 三個의 爐址와 貯藏施設이 發見되었지만 第一三號나 第一四號에는 이런것을 볼수없어 이것은 住居外部에 시설했음을 示唆한다고 했다. 또 第二三號와 第一四號에는 幅 약 六〇cm의 간막이 벽이 나왔다. 그러므로 이 建物址는 벽을 세워서 지붕사까래가 地面에서 뒹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發達된 大規模의 住居址에서 煖房 또는 부뚜막 施設이 發見되지 않았다는데는 의문이 생긴다.

⑤ 江原道 春川市 中島遺蹟

이 住居址는 國立中央博物館에서 一九八〇年 부터 調査한 곳으로서 特히 發掘報告書⑧에 의하면 第一號 住居址와 第二號 住居址는 인근에 있는 加平의 馬場里에서 發見된 冶鐵住居址와 그 形態, 規模, 出土遺物 爐址의 特徵等 性格이 같은것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中島 第一、二號 住居址의 特徵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 第一號 住居址

竪穴의 形態는 모를 없앤 方形으로 竪穴의 平面크기는 東西 五·四m 南北 五m로 깊이는 四二cm 이며 爐址周邊 直徑 二m쯤의 바닥에만 두께 二cm 정도의 진흙을 다지고 그 외는 모래바닥을 그대로 사용했다 한다. (그림 一) 또 爐址는 住居址 西壁에서 一·五m 떨어져 있고 中央에서 北으로 五〇cm 치우쳐 位置하는데 그 크기는 南北을 長軸으로 하는 길이 一·二〇cm와 幅 九五cm 橢圓形이다. 爐의 西쪽(圖面의 方位로는 西北)에 높이 一四cm 길이 四〇cm 幅 一二cm의 큰 돌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외의 三方은 이들보다 一〇cm 낮게 六×七個의 납작하고 길쭉한 넷들을 둘러고 다시 진흙으로 補強하였고 바닥에도 진흙이 단단히 덮여 있

었다. 바닥의 진흙을 벗겨보니 크기 五cm×一五cm 가량의 둥글납작한 넷들을 五〇餘個 白白히 橢圓形으로 잘라 놓은것이 確認되었다. 그리고 이 爐址 西便바로 결에서 흙하나없이 完全한 繩文壺形土器二개가 나왔는데 이 中 큰 土器 속에는 炭화된 粟(粟)의 알맹이들이 가득 들어있었고 土器 外面에도 炭化物이 묻어있다. 爐址와 솥자리 그리고 굴뚝시설로 推定되는 진흙 構造物이 中央部를 비스듬히 가로 지르면서 連結이 되는 것 같다. ⑨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진흙 構造物에 對하여는 가장 關心거리가 되었던 것이라 한다. 東壁에 진흙帶의 幅이 一·五m이고 이것이 壁의 어깨위로 좁아지면서 올라가 어깨 上面에 나타난 크기는 幅七〇cm×七五cm 길이 一·五m 높이 三〇cm 가량 되었다. 또 東壁에 붙은 진흙 더미 속에서 火口와 같은 터널이 나타났는데 높이가 二三cm 幅 五〇cm 이고 그 속에는 二·五cm 두께의 나무 板子가 막혀있고 아래에는 다시 굵은 材木을 가로질러 놓았다. 어깨면에 나타난 것은 一部分 二〇cm까지는 단단하게 다진 진흙이고 그 밑에 솥이 얇게 붙어있고 그 아래에는 다시 흰 모래가 어깨면까지 퍼차있는데 어깨면에는 솥섞인 黑褐色 砂質土層이 얇게 깔렸다…… 이 진흙 構造物이 住居址와 連結되는 굴뚝같은 시설로 利用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⑩(그림 二) 이 遺構에 對한 報告者의 年代 推定은 下層의 구들 構造와 鍛鐵製 鐵器를 根據로 細竹里 遺蹟보다 약간 늦은 것으로 보고 紀元前二~一세기로 推定하였다. 그러나 그 層位에 따라 時代가 다르므로 이 遺蹟이 紀元後 一~二세기를 넘지 않았으리라라고 推定했다. ⑪

○ 第二號 住居址

이 住居址는 第一號 住居址보다 심의 南쪽에 치우쳐 장변에 位置하고 있으며 形態는 不整形이다. 平面의 크기는 東西 六m 南北 六m 內外이고 竪穴의 깊이는 九〇cm×一〇〇cm로 되었고(그림 三) 바닥 中央 北쪽에 치우쳐 一·七m×一·四m의 橢圓形 爐址가 있다. 이 爐址는 第一號 住居址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납작한 강돌을 橢圓形으로 깔고 그 위에 粘土를 덮어 만들었다. 爐址 周圍에는 두께 一六cm 정도의 粘土띠를

돌렸고 북벽 쪽에는 바람막이로(?) 길이 七七cm 두께 四cm ~ 一〇cm 높
이 二〇cm의 긴 板돌을 북쪽으로 六〇度 정도 傾斜지게 세워 놓았다 한
다. (그림 四)

以上の記述로 이 遺構의 煖房 및 이에 關聯된 施設은 特히 다른곳에
서 그 例를 보기 힘든 特異한 形態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特히 第一
號 住居址의 中央部 爐址와 北쪽壁에 붙어있는 진흙화덕과의 聯關性은
어떠한 것인지, 또 爐의 西北壁에 놓인 石材와 第二號 住居址 爐周圍에
머뭇머뭇 둘러있는 石材의 性格등 많은 分野에 對하여 풀어야 할 문제
가 남아있다. 報告書에 依하면 第一號 住居址의 爐址와 北壁에 붙어있
는 부뚜막은 별개의 것으로 無關한 것으로 說明이 되고 있어 이들
중의 하나는 室內煖房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
한 부뚜막 시설로 이미 二개의 機能이 分離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경우 煖房을 위한 爐는 방안의 熱效率上 中央部에 있는 것이 確實하고
壁에 붙은 부뚜막은 음식을 만드는 炊事施設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例는
日本 北海道 海岸モック、遺蹟擦文式 堅穴住居에서 볼 수 있어 여기서는
平面이 方形으로 一邊約 四m 되는데 中央部에 爐址가 따로 있고 南東
隅의 壁쪽에 붙어 소위 カマト(竈)가 놓여 그 外部로 煙道가 있어 연기
를 밖으로 내 보냈다. 이것은 「아이누」族이 사용하던 소위 「トイチセ」
와 같은 發達過程을 보인다고 했다. 즉 「トイチセ」의 경우 出入口의 左
또는 右側에 橫으로 놓여 있어 여기서부터 땅속을 通過하여 外部로 煙道
를 연결시켜 外部에서는 垂直으로 굴뚝을 싸올렸다. ⑤(그림 5) 이렇게
爐와 부뚜막을 分離한 理由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用途가 서로 다르고 使用 頻度가 다르다.

둘째, 使用되는 季節이 爐인 경우 추운 때만 사용되지만 부뚜막인 경우
四季節 거의 다 利用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뚜막인 경우 연기가 빠
져나가는 것을 考慮했을 것이다.

또 여기서 爐의 바닥에 자갈을 깔고 그위에 또 진흙을 덮은 것과 북쪽
에 큰 돌을 세워 놓은 것은 殘熱을 利用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고 큰

돌은 것은 것을 말리기 위한 시설로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지금의 溫突은
밑에서 上向으로 덩혔지만 여기서서는 구들위에서 下向으로 덩혔거나 側
面向으로 덩혔다. 이때부터 소위 溫突에 代用되는 材料 즉 돌과 진흙등
殘熱維持效果가 좋은 材料가 우리나라 煖房施設에 쓰이기 始作한다고
볼 수 있다.

⑥ 水原 西屯洞住居址

報告⑨內容에 의하면 一九七九年 부터 崇田大學校博物館에서 年次的으
로 發掘調査한 것으로 水原市 西屯洞 野山 丘陵에 位置하여 無文土器
만이 出土되는 住居址와 金海式 土器와 無文土器가 함께 出土되고 鐵器
가 伴出하는 住居址가 層位를 달리하거나 別個地點에서 발굴되었다. 形
態를 보면 無文土器만이 出土되는 住居址는 長方形의 住居址이고 金海
式土器와 鐵器가 伴出되는 住居址는 方形의 堅穴住居址이다. 其中第七
號의 方形住居址에서 特殊形態의 煖房施設이 發見되었는데 그 構造는
北壁에 一邊約 三〇cm의 얇은 흙벽돌을 三〇cm 간격으로 양측에 세우
고 그위에 똑같은 크기의 벽돌을 덮어서 方 三〇cm 크기의 터널形의 구
들을 구축하고 西端에서 다시 西壁을 따라 굽어져 아궁이를 만들고 東
端에서 벽에 붙여 굴뚝을 높이 쌓아 지붕위로 뽑아 올렸던 것으로 보였
다 한다. 이 구들은 열을 많이 받는 아궁이 쪽은 논흙을 사용하였고 구들
쪽은 붉은 진흙을 사용하였다. 또 불고래 내부는 흙이 燒成되어 上器처
럼 단단했고 굴뚝이 堅穴內部로 넘어져 있었다 한다.

위의 기술로 보아서 「字形」구들로 생각되는데 아궁이가 구들方向과
一致하게 뚫렸는지 九〇度로 꺾여 뚫렸는지 確實치 않다. 또 이 煖房施
設로 진흙에 벚짚을 섞어 쌓았다 하여 벚농사를 지었던 시기라 한다. 여
기서 報告者는 出土遺物로 보아 初期鐵器時代로 推定하였다.

⑦ 北倉 大平里住居址

여기서는 여러개의 住居址가 알려졌고 其中 第二號 住居址의 前者와

비슷한 時期의 것으로 推定되어 「字」로 倣인 두 고래의 구들을 보이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림 六) 그림에서 보면 이 구들의 北端이 火口로서 2층 고래를 하고 南으로 내려오다가 이것이 「字」로 倣여 東쪽으로 연장되는 部分부터 외골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두고래 구들의 最初例로 보아 溫突의 發展過程을 보여주는 좋은 資料이다.

⑧ 로남리 第2號 住居址(平安北道)

報告書^⑧에 나온 그림 七로 보아 平面 크기가 東西 約 13m 南北 約 10m 되는 큰 方形 住居址로서 이 建物址를 東西로 나누어 양측 방에 各 한개씩 「字形」 구들이 發掘되었는데 東쪽의 것은 東西로 놓인 部分이 길이 3m 幅 30cm 높이 30cm 이며 南北으로 놓인 部分의 길이가 50cm 幅 40cm 높이 30cm 가량되었고 아궁이는 南쪽 끝에 있고 맨바닥에다 그냥 불 피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西쪽 끝이 막혀있고 그보다 좀 東쪽에 구들고래가 끊겨진 상태로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 굴뚝을 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 구들에 싸여진 内部바닥은 진흙으로 굳게 다졌는데 그 방향과 높이는 구들고래보다 낮다고 한다. 또 西쪽에 있는 구들의 方向은 前者와 좀 달라서 西南쪽에 아궁이가 있는 西쪽의 구들고래가 좀 더 길어져서 「字形」로 倣인 二개의 部分이 거의 같은 二개의 部分이 있다. 구들의 規模는 前者와 대체로 같으나 아궁이가 있는 쪽의 구들고래가 좀 더 길어져서 「字形」로 倣인 二개의 部分이 거의 같다. 또한 特徵的인 것은 아궁이인데 구들고래의 撇은 線과 直角으로 倣여 방안쪽에서 불을 때도록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것은 高句麗 壁畫古墳의 부뚜막圖에서도 볼 수 있지만 實際의 遺蹟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附近의 土城里的 住居址에서는 구들고래線 方向에 따라 아궁이가 마련된 것도 있어 어느 것이 先行되는지는 確實치 않지만 다만 연기가 逆行하지 않게 「字形」로 倣인 아궁이가 有利하다는 것은 確實한 것이다. 이렇게 한 지붕 밑에서 二개의 구들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 溫突構造 發展上 또 하나의 段階로 생각된다. 報告에 依하면 이 堅穴址의 時代를 出土遺物로 보아 紀元前 1세기 정도로 본다고 했다.

(다) 歷史時代 初期 구들 施設의 例

이 時代의 구들과 부뚜막의 例로는 高句麗의 後期것으로 推測되는 輯安顯의 동대자 건물지의 구들과 近來 發掘調査된 몇개의 實例를 들 수 있어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① 동대자 建物址

報告^⑨에 依하면 이 建物址는 짜임새나 規模와 材料(蓮花文기와를 사용) 등으로 보아 高句麗後期 貴族階級の 住居址로 推定된다. 前後 附屬 建物址와 함께 一棟의 住居址가 發掘되었다 하는데 平面이 長方形이고 向은 東南向이다. 基壇을 形成한 위에 건물을 세웠던 것인데 建物址로 보아 東西 二개의 방과 그 사이에 南北으로 가로놓인 좁은 통로로 구성되었고 이 二개의 房 外周에도 外陣柱의 積心石이 配列되어 마치 列柱를 갖는 甍간집 平面과 같다. 건물 平面의 東西 길이는 三五m이고 南北의 길이는 一五m라고 하나 圖面으로 보아 약 一八m 內外였다. 또 房의 크기는 東, 西房이 다같이 一五m×十一m 되는 데 東쪽 房의 壁體는 줄기초 위에 세워졌음을 남는 積心石으로 보아 알 수 있고 또 西쪽의 房 壁에는 一定한 간격을 갖고 놓여진 獨立基礎에 依하여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東側房의 中央部에는 폭 一,五×二,〇m쯤 바닥에 강돌과 진흙을 三〇cm×五〇cm 두께로 다져 깔아 이것이 佛壇이거나 祭壇이었을 것으로 推測하고 있다^⑩ 建物址에 남는 礎石들은 柱坐를 한 단으로 올린 것과 二段으로 올린 것이 있다. 양측 방안에는 各 各 한개씩의 「字形」溫突을 놓았는데 東側의 것은 외고래의 溫突이고 西쪽의 것은 두고래의 溫突이었다. (그림 8) 東쪽방의 것은 방안에서 東壁中間部에서 始作, 壁을 따라 北으로 연장되다가 北壁을 따라 「字形」로 倣여 西로 연장되어 北壁 西端에서 벽을 뚫고 北쪽 밖으로 倣여 빠져나가 굴뚝으로 연결된 듯하다. 방 안에 있는 아궁이 부분으로부터 구들 끝 바닥에 이르기까지는 잔자갈

과 기와 조각을 엮어서 깔았다고 하며 아궁이쪽에 깊이가 六〇cm 幅二m 의 큰 구멍이가 있었다 한다. 이 구들 고래의 넓이는 七〇cm 이고 깊이는 二五cm 이고 그 길이는 방 안에서 十〇餘m 가 넘는 긴 고래이다. 방안 쪽에는 얇은 구들장을 덮었고 방밖에 煙道에는 두꺼운 구들장을 덮었다 하며 방 주위에는 강자갈과 기와 조각을 폼다한다. 또 西쪽 방에 있는 구들은 그 南쪽 部分이 교란되었는데 基本的으로 두줄고래로 되어있고 그 한쪽 幅이 三〇cm 이며 고래와 고래사이에는 二五cm 폭으로 기와 조각 등으로 쌓았다. 구들고래는 역시 방바닥 보다 높다. 또 구들장으로는 三〇cm ~ 五〇cm 의 두꺼운 板石을 폼다한다. 또 이 구들의 西쪽 部分은 교란되어 時代를 달리하는 三줄 고래의 구들이 일부있었는데 이것 또한 卍字形으로 꺾여 같은 굴뚝을 이용한듯 北쪽으로 뻗었다 한다. 結局한 지붕 밑에서二个의 溫突을 갖는 예이고, 여기서 특이한것은 그 구들床 面은 그 넓이로 보아서 사람이 충분히 앉고 드러 누울수 있었다는 것이다.

② 서울 華陽地區 遺蹟

一九七七年 國立 서울大學校에 依하여 發掘調査된 곳이다. 位置는 서울市內에서 東南向으로 잠실대교를 못미쳐 城東區九宣洞 住宅街 뒷산이다. 附近을 살펴보면 東쪽으로 峨嵯山城이 있고 그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않은 漢江下流 약 一,二km 지점에 風納里土城과 그西南쪽에 夢村土城이 있다. 그러므로 이 附近의 江邊에서는 가장 展望이 좋고 軍事的要塞를 이루는 지점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遺構는 圓形의 石築構造物內에 우묵한 지대를 마련하여 여기다 建物을 세우고 寄居했던 建物址였는데 報告書⑦에 依하면 建物址가 모두 불탄 흔적이 있어 이곳을 燒土部라 하고 이 外壁 石築이 되어있는 部分을 築石部라고 記錄하고 있는데 築石部는 그 基底에 割石을 直徑 一四,八m 의 圓形으로 깔고 그위에 割石을 七~八段 물러가면서 쌓되 그위에 다시 川石을 六~八段 쌓은것이 보통이며 石築上部가 안쪽으로 기울도

록 쌓았고 上部에서는 平面上 八〇cm ~ 九〇cm 안쪽으로 들어갔다. 石築의 높이는 바닥에서 一,〇m 內外이며 가장 높은곳은 一,八五m 에 달한다. 이 石築은 대체로 보아 東쪽에二个의 突出部를 갖고 있는데 平面으로 보아 幅 一,五m ~ 一,八m 길이 一,六m 를 내어 쌓은것이고 이二个의 突出部間의 거리는 石築面에서 약 一,八m 되었다. 또 南쪽에는 또 다른 突出部가 있어 石築을 따라 階段形으로 높아지고 있어 出入口로 推定되는데 이것은 建物址의 形態가 內部에서 圓形을 이루다가 이곳에만 方形으로 突出된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이와 反對面에는 石築外邊과 간격을 띄어(六〇cm ~ 一,二m) 一邊이 三,一m 의 正方形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石築쪽이 七〇cm 정도이고 反對쪽은 낮아지고 있다. 이 石築 內部의 建物址는 直徑 七,六m 의 圓形인데 前述한 南쪽 出入口 쪽만 長方形으로 突出하고 있다. (그림 9 參照) 이 建物址 周邊에는 壁線을 따라 二二個의 기둥구멍이 있고 그 간격은 대체로 八〇cm ~ 九〇cm 內外로 되어있다. 이 壁線과 外築石 上邊과의 거리는 약 二,五m ~ 三,〇m 였는데 이 건물 바닥은 이 石築 上面에서 약 七〇cm ~ 八〇cm 낮았고 東北쪽에는 구들이 길게 南北으로 뻗어있어 北端에서는 壁에 接하여 굴뚝을 세웠던것 같다. 또 이 北端에서부터 始作하여 北西壁을 끼고 돌다가 石築 밖으로 通過시키고 있는 排水施設도 露出 되었다. 특히 이 建物址 外周邊에서는 心壁의 壁板材가 나왔는데 길이가 一三cm ~ 一四cm 幅 七cm ~ 八cm 두께 〇,六~〇,八cm 板石을 二cm ~ 三cm 의 틈을 두어 기둥 밖으로 대고 짚여물을 섞은 사벽바름 二회로 미장하였다. 建物址 內部에 타다 남은 建物材料를 보면 직경 一三cm 정도의 서까래와 짚섞인 흙으로 미장한 흔적을 볼수있고 그위에 판자널을 얹은것으로 보여 요즘 기와지붕처럼 제법 發展된 지붕 構造를 보이고 있다. 前述한 부뚜막은 割石을 四〇cm 높이로 양측에 세워 側壁을 만들고 그위에 板石을 걸쳐 놓았는데 全體의 길이는 三,四m 이며 구들물의 幅은 四〇cm 內外이다. 또 蓋石下面과 割石內壁에는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다. 蓋石 위에는 짚갈은것을 섞은 粘土를 바른 흔적이 있었다. 이 구들 南端에 아궁이가

는데 불을 側壁쪽에서 구들골 方向의 直角으로 때도록 되어있고 아궁이 위에는 길이 六〇cm 되는 얇은 이맷돌을 얹고 이 부분에서 鐵술을 걸 쳐놓았다. 또 北端의 골목부분은 川石으로 八段을 쌓아 구들 높이가 보다 높였는데 그 內部空間은 平面으로 四〇cm × 三〇cm 되었다. 이 內部에는 바닥에 燒土가 五cm ~ 一〇cm 정도 채워져 있었으며 그 밑은 灰白色 土層이 있었다. 또 바닥과 燒土中에는 動物 뼈가 약간 出土되었는데 이들은 外部 燒土가 구들內로 流入되었을 때 묻혀 들어간 것이라고 기술했다. 以上의 記述은 報告書와 筆者가 發掘現場에 踏查 觀察하였던 것을 綜合하여 略述한 것인데 筆者의 所見으로는 이 構造物을 兵營의 望樓를 檢한 要塞建物로 생각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 理由로는 첫째 望臺위에 防護建物을 세운 形態로서 朝鮮時代に 볼수있는 圓形平面의 墩臺¹⁶⁾ (그림 一〇)의 原初的 構造로 볼수있고 둘째 前述한대로 이곳이 軍事的 要塞地인데다 報告書에 記述했듯이 出土遺物中 鐵刀, 鐵針와 鐵鏃 등 武器類가 壓倒的으로 많이 나왔다는 점, 셋째는 出入門 지도리石으로 생각되는 돌이 二개 發見되었고 또 잘 짜여진 排水路와 구들과 外壁의 사벽치기등이 時期로서는 永久的이고 堅實한 建築手法를 보이고 있어 臨時建物로 보기 힘든다는 점이다. 如何든 이곳에서 사람이 살았었다는데 異意는 없을것이다.

③ 扶蘇山域內 堅穴建物址

一九八〇년부터 文化財研究所에서 發掘調査 實施해온 扶蘇山域內 遺蹟發掘調査는 西腹寺址와 軍倉址를 調査한데 이어서 軍倉址 西南쪽內 城을 끼고 내려오다가 外城과 만나는 地點 못미처 南쪽으로 傾斜져 있는 낮은 丘陵위에 平地를 日帝時代 米田氏가 記述한 方形建物址로 推定하여 發掘調査하였다. 그러나 調査結果 兵營으로 생각되는 堅穴建物址가 露出되었다. 처음 三〇cm ~ 四〇cm까지는 出土遺物로 미루어보아 百濟時代의 末期로부터 高麗時代까지 내려오는 遺蹟이 나오고 이 아래層인 風化岩層을 깎아서 堅穴式으로 形成된 建物址 三個所가 露出되었다. 이를

概述하면 다음과 같다.

○ 第一號 建物址

一邊이 四m의 正方形이고 깊이 四〇cm 정도의 堅穴로 이 建物址의 西便에는 西壁을 利用하여 平面幅이 四〇cm 되게 石列을 區劃하여 南北 三,七m 길이로 鑿어 이위에 百濟時代것으로 推定되는 암기와 片을 우묵하게 잘아 만든 長方形의 遺構가 露出되었다. 用途는 確實치 않으나 土層調査結果 불을 사용했던 施設로 推測된다.¹⁷⁾

○ 第二號 建物址

이것 역시 約 四m의 正方形이고 깊이 五〇cm ~ 六〇cm 되는 堅穴式 建物址로서 네모서리에는 直徑이 比較的 큰 기둥구멍(약 六〇cm)이 있고 東과 西壁에는 조금작은 기둥구멍이 같은 간격으로 壁面을 半式接하여 二個所式 대칭으로 놓여있다. 바닥은 赤色の 粘土를 가진 層이며 東側壁 中間部에 接한 바닥 면에서는 南北方向으로 施設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鑿어진 石列一部와 그 밑에 燒土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層은 堅穴 外壁에서 밖으로 걸쳐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遺構가 많이 攪亂되어 그 形態와 規模를 確認할 수 없었다. 이 遺構는 第一號 建物址의 南西側 좀 낮은 곳에 位置하고 있다.

○ 第三號 建物址

表土로부터 五〇cm ~ 六〇cm 깊이에서 百濟時代의 四巴文 숫막새와 印花文土器등이 수습되고 이 아래層에서 風化岩層을 깎아 이룬 堅穴建物址가 露出되었는데 이역시 一邊이 約 四m의 正方形에 가까운 平面을 하고 있으며 堅穴깊이는 約 七〇cm ~ 九〇cm 정도 되었다. 그리고 南側面 中央部에는 出入을 위한 階段이 마련되고 堅穴址 內에는 東側壁에 連接하여 中央部에서 始作하여 北壁外部로 鑿어 나간 두줄의 土石混築의 構造物이 나왔는데 그 內幅이 約 二五cm ~ 三〇cm 였고 兩側壁은 깊이 約 二〇cm ~ 三〇cm 두께 一五cm ~ 二〇cm의 割石을 세워쌓되 粘土와 砂質土를 섞어 다져쌓은 돌을 마련하였는데 바닥에서 높이 約 三〇cm 정도 였다.

南쪽 끝에서는 이 構造物이 넓어져서 平面이 東西 九〇cm × 南北 六〇cm 정도되는 까맣게 탄 燒土層部位가 바닥보다 五cm ~ 六cm 낮게 깔려 있었고 이 部位에서는 西쪽으로 開口를 마련하고 南쪽을 막았으며 그 내부 中間部에는 작은 돌을 몇 개 세워 솔을 걸칠 수 있게 하였다. 이 燒土 바닥층에서는 黑褐色 軟質土器 뚜껑片이出土되었다. 또 側壁內部는 붙에 그들은 흔적이 있어 이것이 구들 또는 부뚜막 施設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구들 시설은 길이가 約 三, 七m 인데 堅穴內部에서 二, 三m 外部에서 一, 四m 이고 아궁이에서 堅穴北壁 가까이까지는 바닥이 約 三〇cm 정도 높아지고 여기서 外部 끝까지는 約 五〇cm 로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 外端에는 골목을 쌓아 올렸던 흔적을 볼 수 없었고 煙道의 蓋石은 모두 없어졌다. 이 堅穴建物址 中心部에는 거의 같은 간격을 두고 直徑 約 一八cm 의 기둥구멍 四개가 파져 있었고 이 西쪽과 北쪽에 接하여 西壁과 北壁 사이는 「字」로 平面을 이룬 구덩이가 나타났는데 이 구덩이의 幅은 七八cm 이었고 구덩이 깊이는 二八cm 이며 北邊 길이 二四八cm 西邊 길이는 二七八cm 가 되었다. 이 遺構는 建物內部空間位置로 보아 다른 動線에 의하여 侵害받지 않는 位置에 있어 寢床으로 推測됐다(그림 一一 參照) 이 바닥은 堅穴의 바닥과 같이 堅固한 土層위에 粘土를 다져 깔고 있었다. 또 階段 옆 西側에 別途의 外部로 通하는 골목길이 있고 그 끝에는 큰 容器를 묻었던 자리가 있으며 이 建物址 西南귀 內側에 또 다른 큰 容器가 놓였던 흔적이 있다.

또 계단지 內部 바닥 兩側에는 기둥구멍이 있어 문과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堅穴住居地 어께 위 壁線에도 그 間隔이 一定치 않게 뚫린 기둥구멍이 보였다.

이 建物址 南쪽 좀 낮은 지대에는 東西方向으로 列지어 있는 木册孔 이 나왔는데 그 구덩이의 間隔은 一, 二m 였다. 또 이 建物址 西北과 東南쪽에는 圓形과 方形이 混合된 貯藏孔이 露出되었는데 이 形態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特異한 穴倉이었다.

이러한 發掘狀況으로 보아 이곳은 서울 華陽里 遺蹟과 같은 兵營의

막사였을 것으로 推測된다. 이러한 堅穴式의 兵營은 日本 宮城縣에 있는 多賀城內에도 있다고 하나 時代가 이보다 멀어지는 七~八세기의 것이라 한다.

이 遺蹟發掘調査에서는 土器·蓋杯·土製벼루片, 灰色 및 黑灰色 硬質土器片 등 三國時代의 遺物이 많이 나와 百濟時代遺蹟으로 推定되었다.

그러므로 百濟時代의 구들도 高句麗의 구들 혹은 부뚜막 같이 아궁이를 室內의 煙道에서 直角方向에 두고 있으며 골목은 室外로 뚫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高句麗와 같이 「字」구들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氣候의 條件上 一直線의 부뚜막으로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④ 文獻 기타에 의한 이 時代의 구들

。新唐書 高麗(高句麗)條에는 「…居依山谷 以艸茨室, 惟王宮官府佛廬以瓦 寢民盛多作長坑 焜火以取煖…」이라고 되어진 溫突이 高句麗에서 흔히 쓰였음을 記錄하고 있다.

。高句麗 古墳壁畫 安岳 三號墳의 東測室 壁面에 방앗간·廚房·肉庫·車駕庫·牛馬舍 등의 住宅附屬建物이 그려져(그림 一二) 있는데 이 중에서 廚房은 그 構造와 함께 建物の 細部까지 잘 나타나 있다.

建物の 側面과 正面의 內部를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게 그렸는데 側面壁은 방공지붕 밑 中央部에 出入口이 그려져 있고, 그 바로 옆에 부뚜막의 煙突이 빠져 나와 위로 향하다가 다시 水平으로 꺾이었는데 그 끝은 圓形이고 끝으로 가면서 점점 가늘어졌다. 또 建物內部에는 부뚜막이 옆으로 길게 놓이고 한쪽 끝부분에 火口를 두었는데 부뚜막 긴골 方向에서 九〇度로 꺾인 側壁에 마련되어 있어 위에서 본 實例들과 같은 方法을 썼다. 이 火口 앞에는 境界를 表示하거나 一段을 지은 線이 「字」로 나타났고 火口 위에는 얇은 中枋이 지나가고 그 上面에는 土器시루와 같은 것이 얹혀있으며 그 옆에서 여인이 調理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부뚜막 옆 빈 空間에는 食品인지 무엇인가 쌓여있는 것도 있다. 이

러한 形式의 부뚜막은 藥水里 古墳壁畫에서도 볼수 있고 高句麗 土城里에서 出土된 土製 부뚜막과 鐵製 부뚜막에서도 實際로 보인다. (그림 一三)

특히 壁畫에 나오는 人物圖를 보면 床坐式과 의자에 앉은 자세를 같이 볼수 있어 이때만 해도 完全한 溫突房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高句麗의 부뚜막 形式은 百濟에도 그대로 傳해져 上記한 바 實例에서 볼수 있었던 것이다. 이 事實은 新唐書 東夷傳의 百濟條에「……俗與高麗同」이라 하였음이 뒷받침해 준다.

新羅時代의 구들에 對하여는 別로 資料가 보이지 않는다. 三國史記 卷第三 雜志 二 屋舍條에「……床得不飾玳瑁紫檀沈香黃楊。又禁錦薦。……」이라 하여 床에 高級木材로 裝飾하지 못함을 記述한 것을 보면 貴族들이 平床 또는 마루를 흔히 使用했음을 알 수 있다. 또 同 史記 憲康王 六年 記錄에는「……王與左右登月上樓四望。京都民屋相屬。歌吹連聲。王顧謂侍中敏恭曰。孤聞今之民間覆屋以瓦。不以茅。炊飯以炭。不以薪。有是耶。……」라 하여 밥을 짓는데 장작을 쓰지 않고 숯을 使用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데 이 역시 貴族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무를 使用치 않았다는 것은 연기를 내보내는 구들을 利用하지 않고 一九七六年 雁鴨池에서 發掘 出土된 風爐(그림 一四)와 같은 것을 使用하여 밥을 지었다고 보아야 한다. 新唐書 東夷傳 新羅條에 그 風俗에 대하여「……冬則作竈堂中 夏以食水上……」라고 하여 겨울에는 방안에 부뚜막을 사용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雁鴨池나 皇龍寺址, 感恩寺址 등을 살펴 보아도 新羅時代의 구들施設은 볼수 없었다. 다만 塼으로 바닥에 쌓은 ㄷ字形 平面的 遺構들이 나왔으나 이것이 房안에 爐인지는 確實하지 않고 感恩寺址에서는 西쪽 廻廊址 옆에 붙어 溫突構造가 나왔지만 이것은 後代(高麗?)의 것으로 新羅時代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結 論

以上の 論述에서 우리나라의 煖房施設인 溫突의 發生起源에 對하여 알아 보았다. 여기서 綜合하여 結論 지을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一) 우리나라 新石器時代 竪穴住居의 煖房施設은 竈(부뚜막)를 겸하였다. 즉 爐와 竈를 겸한 것이다. 이때 이 施設은 竪穴 中央部에 하나만 놓여 그 形態는 智塔里와 弓山遺蹟에서와 같이 長軸 一m 内外의 橢圓形인 경우도 있고 또 서울 岩寺洞 遺蹟에서와 같이 圓形 또는 方形인 때도 있다. 또 이때 爐의 周邊에는 보통 堅固한 自然石이나 礮石의 破損된 石材를 돌린 경우와 弓山第二와 五號住居址에서와 같이 진흙으로 돌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여 돌과 진흙을 구어 그 殘熱을 利用할 줄 알았다고 생각된다.

(二) 靑銅期에서 初期鐵器時代에는 農耕生活를 하면서 收穫된 農作物을 貯藏해 두고 炊事를 爲하여 隨時로 使用하는 竈(부뚜막)가 必要했기 때문에 住居内部에 또 하나의 爐를 두어 爐와 竈를 分離하여 竈는 煙氣의 排出등을 考慮하여 室內 한쪽으로 옮기게 된다. 그 實例로서 이時代의 爐가 竪穴 한쪽으로 치우쳐 한개 이상 두는 경우와 前述한 中島第二住居址와 같이 爐를 竪穴中央에 두고 부뚜막을 建物址 한쪽 壁에 붙여 따로 두는 경우가 있다. 또 이때 高句麗에는 北倉大坪里와 로남리 竪穴住居址에서 볼수 있듯이 구들받 一·二줄을 ㄱ字로 놓은 溫突構造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溫突이 아궁이는 房안 구들받 側面에서 불을 지피도록 하고 있고 한쪽은 煙道로서 室外로 뽑아냈다. 이때 구들과 부뚜막(竈)이 中國의 炕과 같이 겸할수도 있고 前述한 高句麗古墳壁畫에서 보듯이 分離하여 別途의 廚房을 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또 溫突의 熱利用 方法을 前時代와 같이 돌과 진흙을 구어 덥혀 이 殘熱을 利用했는데 특히 爐의 바닥에는 公貴里 第五號 住居址와 같이 板石을 깔거나 中島遺蹟과 같이 바닥돌과 그위에 진흙을 덮어 같이 混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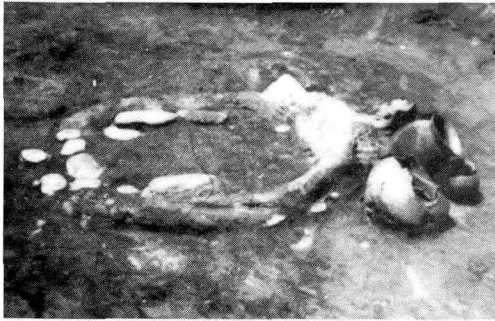


사진 1 中島 第一號 住居址의 爐址 (粘土가 덮힌 상태) 中島 I 1980. 轉載



사진 2 中島 第一號 住居址의 爐址 (粘土를 벗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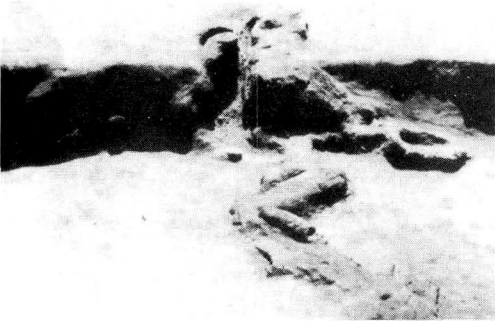


사진 3 中島 第一號 住居址의 火口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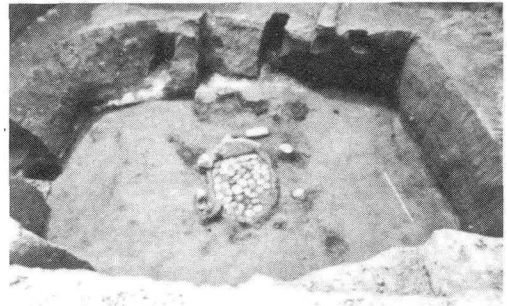


사진 4 中島 第三號 住居址



사진 5 中島 第三號 住居址의 爐址



사진 6 扶蘇山城內 第一號 豎穴 建物址 (筆者 現地撮影)



사진 7 扶蘇山城內 第三號 豎穴 建物址와 부뚜막

사진 8 扶蘇山城內 建物址의 부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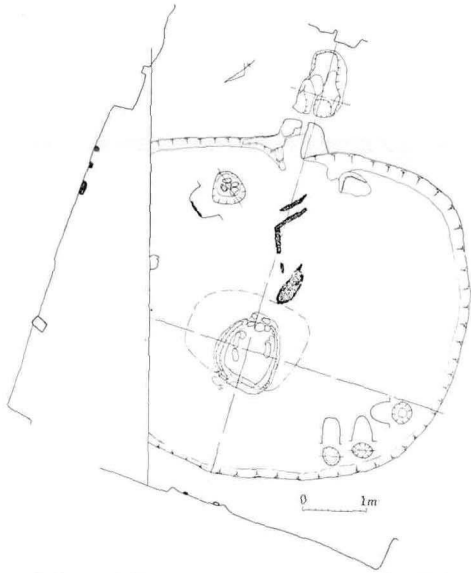


그림 1 中島 I 1980 轉載 住居址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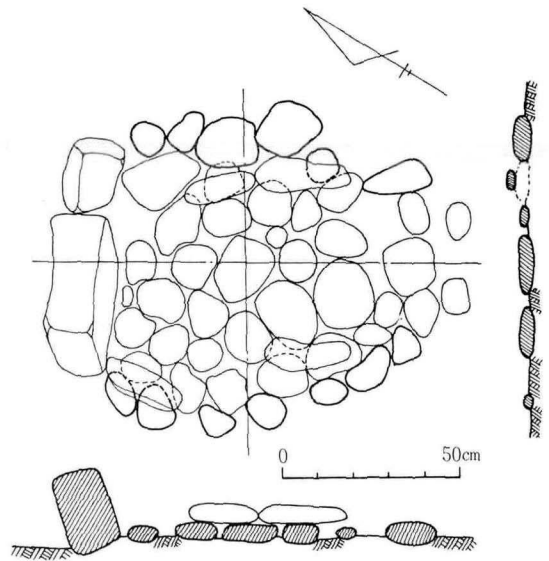


그림 2. 中島 I, 1980 爐址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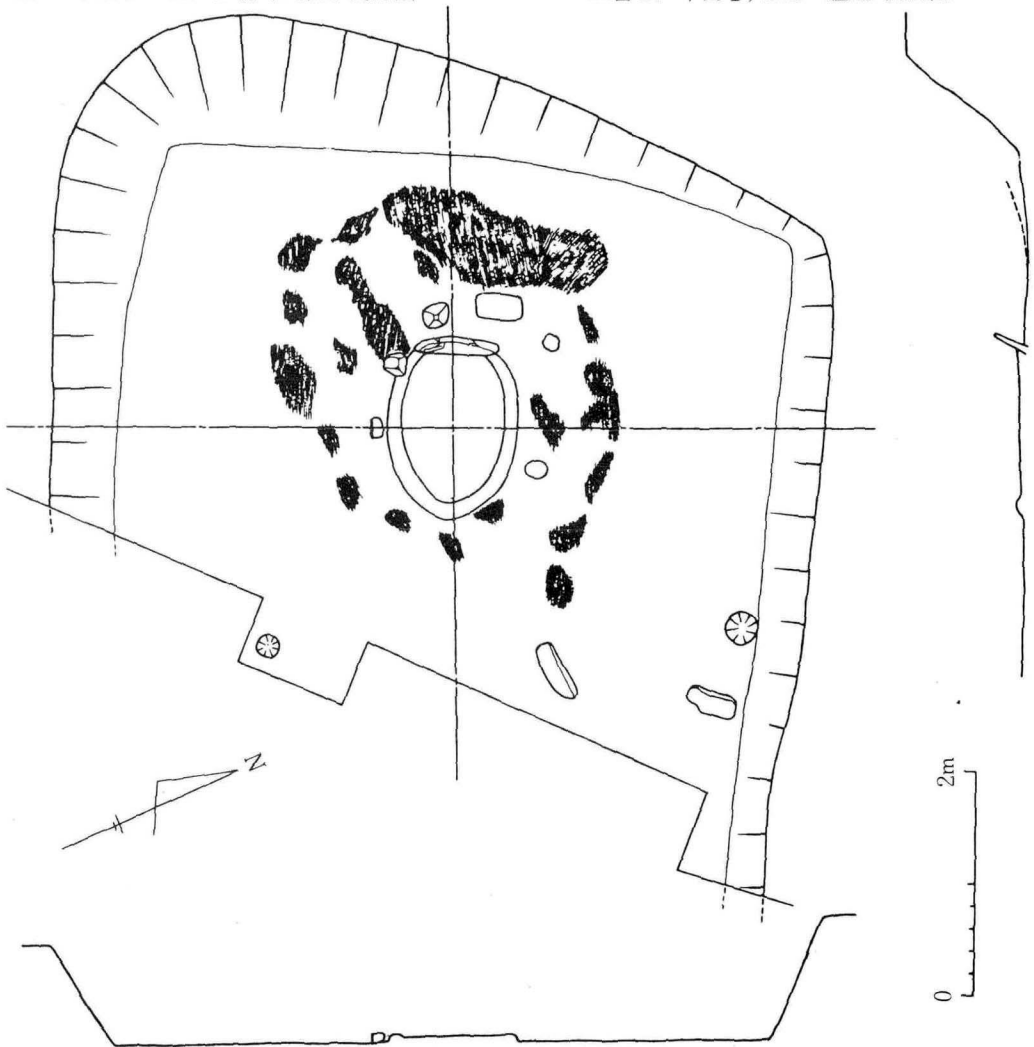


그림 3. 中島 III, 1982 住居址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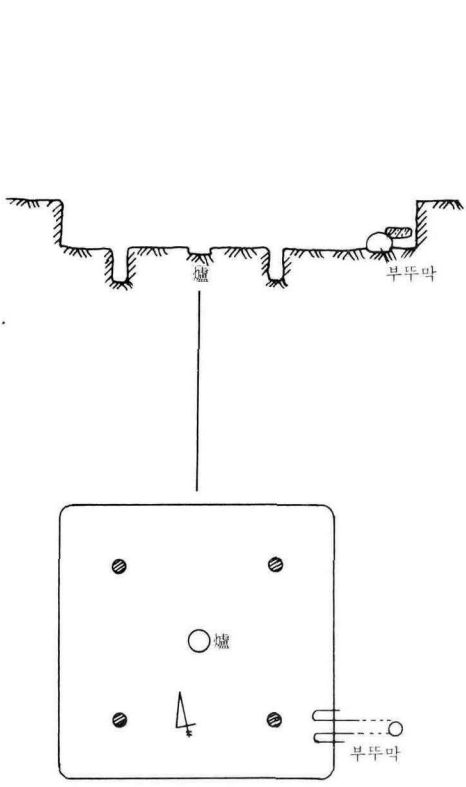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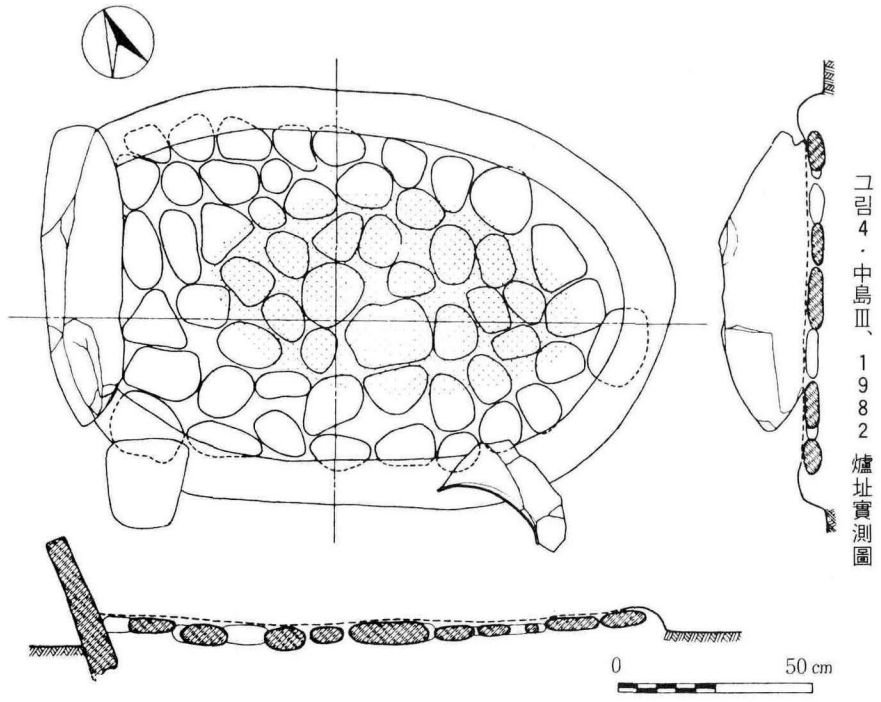


그림 5. 日本 北海島 擦文式 竪穴住居址
日本 建築雜誌昭和26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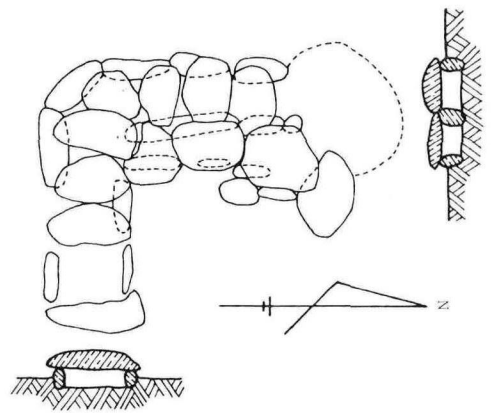


그림 6. 大坪里 2號 住居址內 爐址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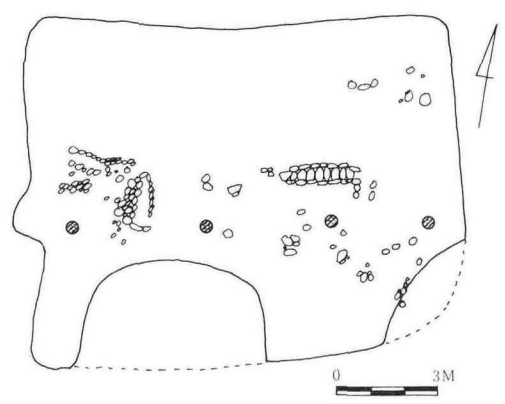


그림 7. 노람리 제 2 호 집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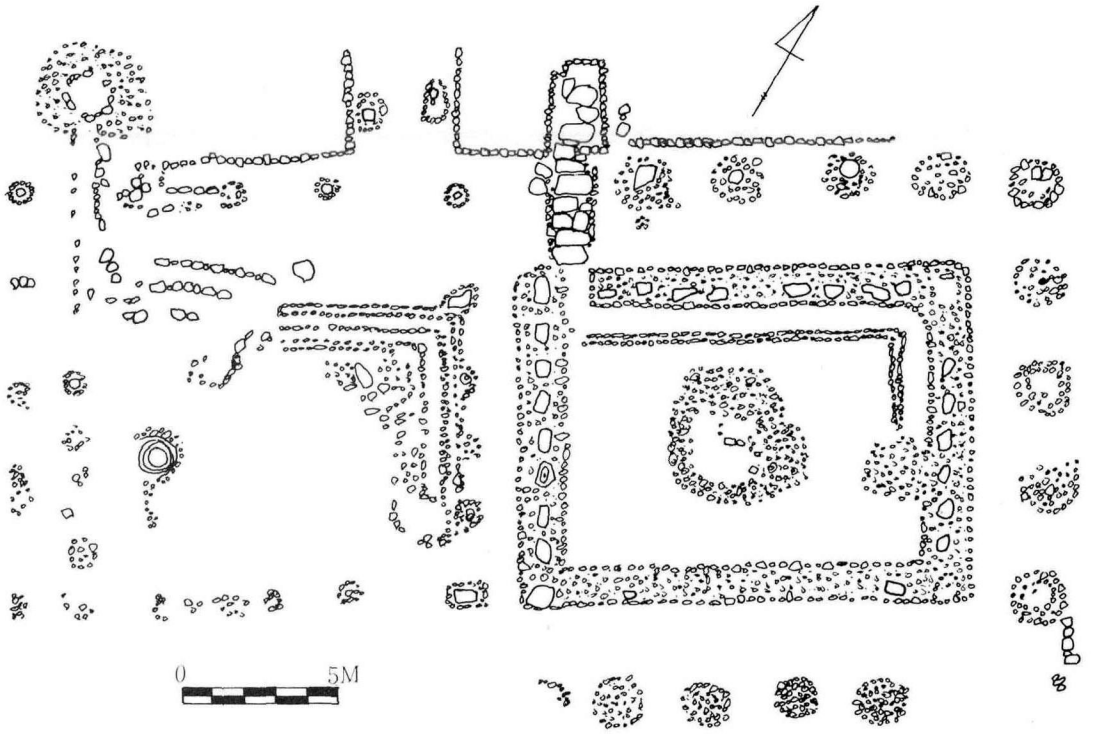


그림 8. 죽안 동대자유적 제 1 (동쪽) 및 제 2 (서쪽)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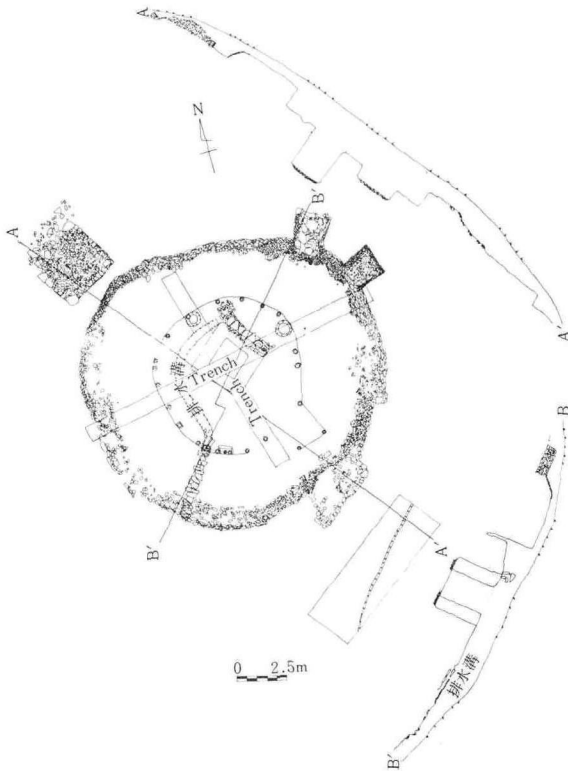


그림 9. 華陽地區 建物址 發掘報告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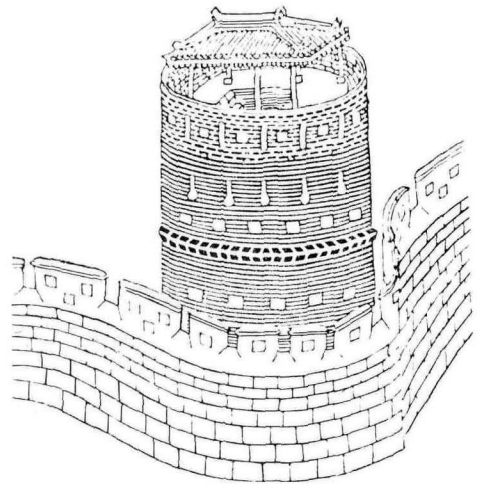


그림 10. 華城城役儀軌의 東北孔心墩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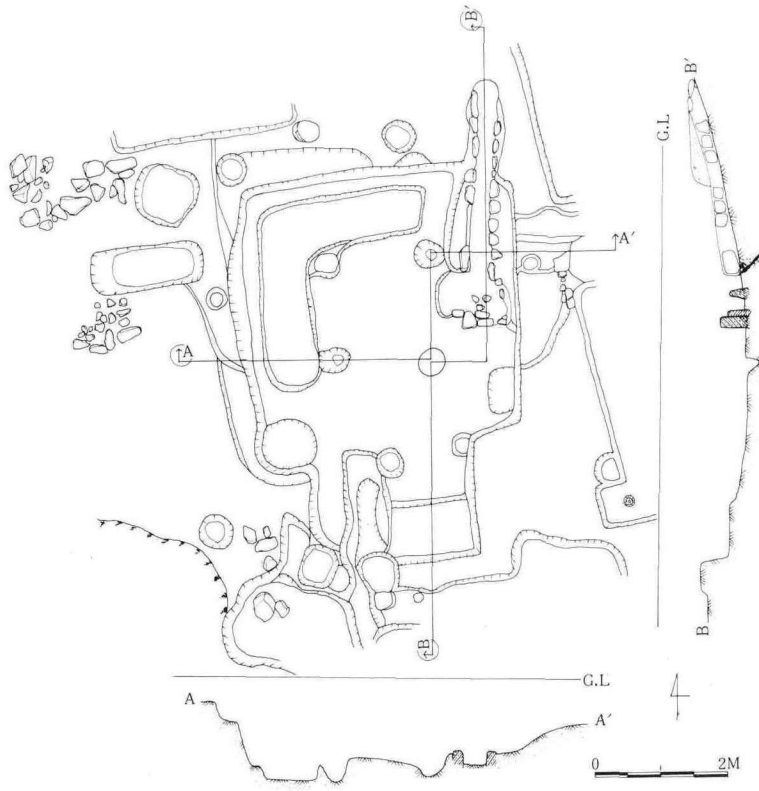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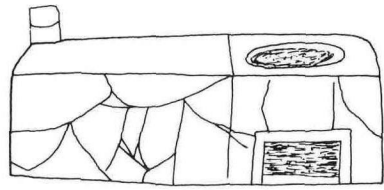


그림 11 · 扶蘇山城內 第三豎穴建物址 遺構圖面



그림 12 · 안압제 3호 무덤벽화의 부업간 그림



용호동 제 1호 무덤출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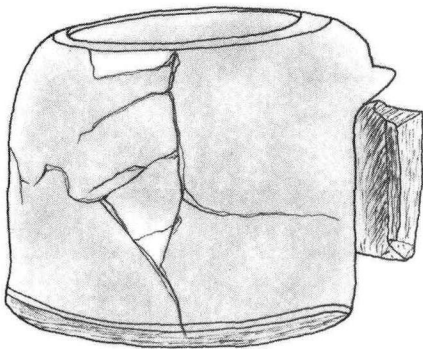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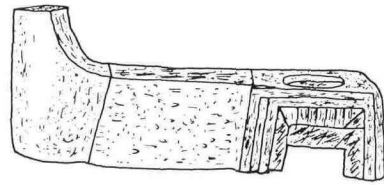


그림 14. 안압지 풍로



죽안부근 출토품

그림 13.

이들을 위에서 下向으로 덮힌 方式을 쓴 경우도 있고 이보다 發達된 구들골 方式으로 밑에서 上向으로 덮힌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구들골은 前述한 水原 西屯洞住居址에서와 같이 建物址 한쪽벽에 붙어 一字로 곧게 뻗은 것과 高句麗의 遺蹟과 같이 「字」로 놓인 경우가 있다.

三) 歷史時代의 溫突로서 高句麗에서는 前述한 동대자 遺蹟에서 볼수 있듯이 房의 內壁에 붙여 구들을 施設했는데 「字」로 꺾여 壁과 連接하여 連長되다가 壁끝에서 다시 外部로 뚫고 나가는 소위 「長炕」을 이룬다. 이때 붙은 방안의 炕側面에서 마련된 아궁이에서 지피게 된다. 이와 같은 炕은 中國의 一部, 特히 蒙古 및 滿洲族들이 使用하는 煖房施設로 우리나라 요즈음의 溫突房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들골이 房壁을 끼고 여러 형태로 돌고 있고,

둘째, 煙道는 室外로 뚫고 있지만 불을 때는 아궁이가 房안에 있어 煖房의 熱效率을 높이고 있지만 방 바닥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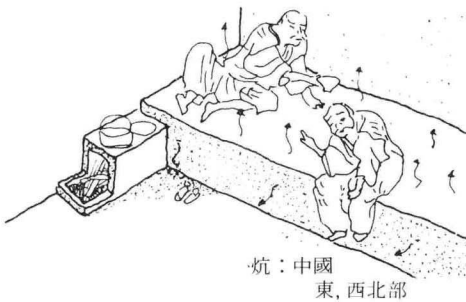
셋째, 前者의 경우 房안에 신을 신고 들어가서는 立式生活이지만 後者の 경우 신을 벗고 들어가는 坐式生活을 하는 것이 다르다.

넷째, 다같이 한쪽골에 솔을 걸고 飲食을 내놓을 수 있어 爐와 竈(조)를 겸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부엌은 많은 아궁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前者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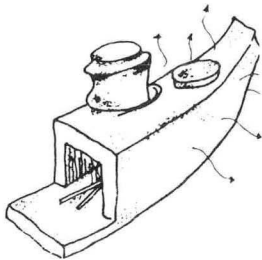
四) 그러므로 이러한 差異點을 形態機能學上으로 볼 때 이 구들은 高句麗族, 즉 우리民族이 처음 使用하였으며 이것을 中國에 傳播시켰고, 한층 더 發展되어 지금의 溫突을 形成하였다. 이것은 古書에 記錄된 高句麗의 「長炕」이 다른 곳에 對하여는 그 記述이 없음이 더욱 굳혀준다.

五) 우리나라 南쪽 地域인 百濟의 古地에서도 前述한 바와 같이 외준고래의 直線形 구들 혹은 부뚜막이 使用되었는데 高句麗의 그것과 같이 아궁이를 室內의 煙道에서 直角方向에 두고 있으며 골목은 室外로 뚫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前述한 實例는 特殊建物址의 예이므로 一般住居와 반드시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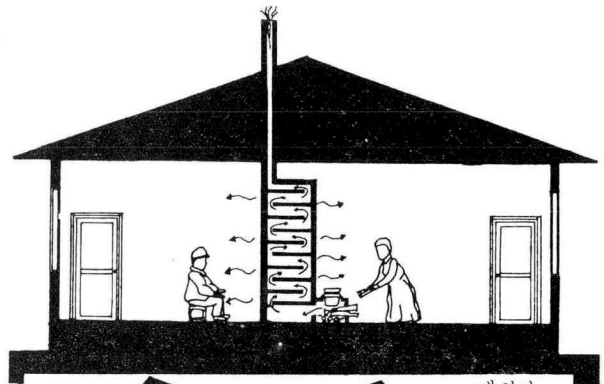
六) 新羅에서는 주로 貴族들이 방안에 竈를 놓아 房을 덥혔거나 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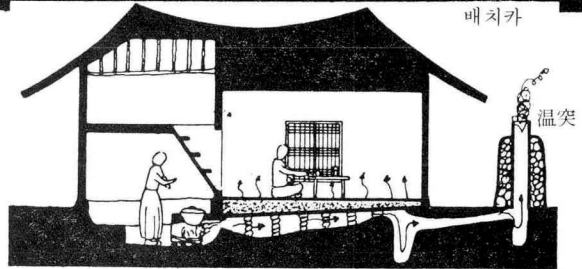
炕：中國東、西北部



中國竈



배치카



溫突

그림 15. 韓國文化 1983. 1 韓國의 溫室에서 轉載

形式으로 짧은 겨울을 지냈을 것이나 庶民이나 一部 추운 지방에서는 역시 溫突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推測된다. 지금 濟州道の 봉덕과 부설의 施設은 이 좋은 例가 아닌가 생각한다. 즉 濟州道の 봉덕은 마루中央에 爐의 施設을 한 것이고 부설은 정지에 있는 爐를 말한다 고 볼수 있다.

以上과 같이 우리나라의 溫突은 오랜 歷史를 가지고 發展되어 결국 炊事의 殘熱도 利用하는 經濟的 暖房을 하게 되고 바닥을 덥혀 바닥에서 나오는 輻射熱과 熱傳導에 依하여 暖房을 하므로 效率的이다. 또 房안에서는 火口 施設을 두지 않아 危險性이 없고 냄새와 不潔한 것이 없어 衛生的인 暖房 施設이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연탄을 使用하면서 이러한 長點을 가지고 發展시킨 우리나라의 溫突은 가스의 中毒으로 危險을 갖게 되었으니 智慧를 모아서 이를 하루속히 解決하는 方案을 마련 하려야겠다.

〈參考文獻〉

- 金正基：우리나라 住宅의 歷史, 住宅公社, 一九七九
- 竹島卓一：營造法式의 研究, 中央公論美術出版, 昭和四七年
- 中國建築史 編集委員會編, 中國古代建築簡史, 一九七五
-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書：欣岩里 住居址 四, 一九七八
-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書：中島 I~N, 一九八〇~一九八二
- 富正憲：韓國의 溫突, 韓國文化誌
- 田中談, 決昭次：中國의 住宅, 鹿島出版會, 昭和五一年
- 葉大松 編著, 中國建築史, 中國電機, 技術出版社, 中華民國六七年
- 三國史記
- 三國遺史
- FRANCIS CELORIA: ARCHAEOLOGY, BANTAM SCIENCE

[註]

- ① FRANCIS CELORIA: ARCHAEOLOGY, Bantam Science, p. 12.
- ② 後漢書 東夷傳 挹婁條「……處於出林之間 土氣極寒常爲穴居 以深爲貴大

家接口梯

○ 前揭書 東夷傳 韓條「……無城廓作土室形如家 開戶在上……」
 ○ 三國志의 東夷傳 辨辰條에「……其國作屋橫累木爲之有似牢獄也……」
 ○ 晉書 肅慎氏條에「……肅慎氏一名挹婁……居深山窮谷 其路險阻車馬不通 夏則巢居 冬則穴處……」 등의 記錄이 있지만 여기서 穴處와 草屋, 土室은 같은 形式을 意味하였는지도 모른다. 또 巢居에 對하여는 대부분의 建築史家들이 高床住居로 해석하고 있다.

- ③ 金正基：우리나라 建築의 歷史, 住宅公社
- ④ 金元龍 編「韓國考古學年報二」中金鍾徹「서울 岩寺洞 先史聚落址」
- ⑤ 金正基：前揭書
- ⑥ 金正基：前揭書
- ⑦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欣岩里住居址 四。
- ⑧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書 第一二, 一三, 一四册 中島進展報告 I, II, III 一九八〇, 一九八一, 一九八二。
- ⑨ 前揭書 中島 一九八〇, p. 18.
- ⑩ 前揭書 一九八〇, p. 20.
- ⑪ 前揭書 一九八〇, p. 38.
- ⑫ 石原憲治：建築雜誌, 昭和二六年 堅穴住居一二就, p. 6.
- ⑬ 林炳泰：水原西屯洞 住居址 發掘, 博物館新聞, 一九八二, 一, 二, 三, 四, 五, 六號。
- ⑭ 정찬영：考古民俗 一九六六, 우리나라 구들의 유래와 발전
- ⑮ 정찬영：前揭書
- ⑯ 그런데 報告者는 東側의 방은 祭堂으로 사용되었고 西側방은 살림방이라 했다. 이것은 三國志 魏書 高句麗傳에「於所居之左右 立大屋祭鬼神」이란 記 錄을 立證하는 것이다.
- ⑰ 서울大學校 華陽地區 遺蹟發掘 調查報告書, 一九七七年。
- ⑱ 華城城域儀軌의 東北空心墩圖參照。
- ⑲ 文化財管理局：文化財誌 第一七五호, 장경호, 홍성민, 扶蘇山城內 建物址 發掘 調查 略報告, 一九八四。